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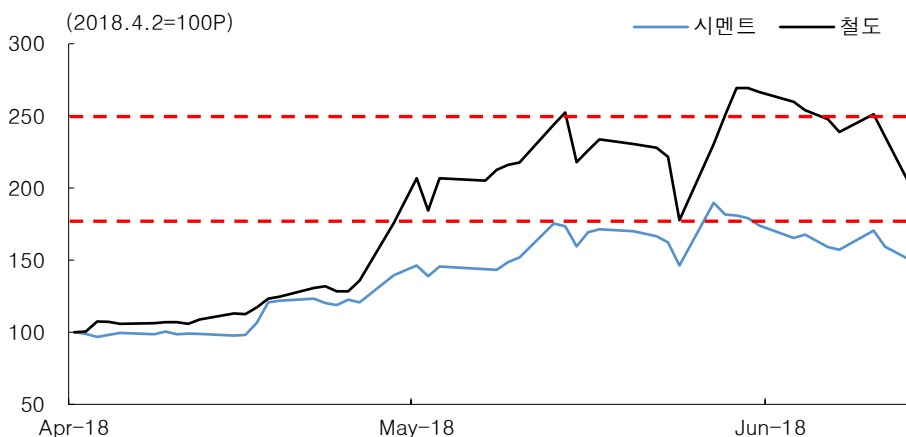
북미정상회담 종료, 소외되었던 실적주에도 관심을 가질 필요

북미정상회담 종료와 함께 차익매물로 급락세를 보인 남북 경험주
2단계 북미 대화가 개시되기 전까지는 수급 공백 불가피
경험주 랠리로 인해 소외되었던 실적주에 대한 접근이 필요한 시점

마켓 Point

- 북미 정상회담 개최 기대감과 함께 상승세를 보이던 국내 증시는 북미정상회담 이후 차익매물 출현과 미 연준의 매파적 스탠스에 급락세를 연출. 남북 경험주를 주도하던 철도와 시멘트 관련주에서도 차익매물이 대거 출현하며 추세를 이탈
- 남북경협이라는 막연한 기대감에 편승한 투자는 일단락. 2단계 북미 대화가 개시되기 전까지는 수급 공백이 불가피할 전망. 남북경협 스토리에 베팅하더라도 남북 교류 가시성이 높은 테마에 국한된 전략이 필요
- 이와 더불어 경험주 랠리로 인해 상대적으로 소외되었던 실적주에 대한 접근이 필요한 시점. 코스피가 지난 1분기 사상 최대 분기 영업이익을 달성한데 이어 2분기에도 반도체 업종의 이익 개선이 이어지며 사상 최대 분기 영업이익을 경신할 것으로 예상되기 때문. 영업이익 기여도가 가장 높은 반도체 업종과 더불어 4월 이후 실적 전망치 상승폭이 높은 업종인 보험, 기계, 건설, 소프트웨어 등에도 관심을 가질 필요(6월 13일자 '투자정보 Biweekly' 참고).

[그림 1] 주요 남북경협 관련 테마주 추이



자료: Quantwise, 한국투자증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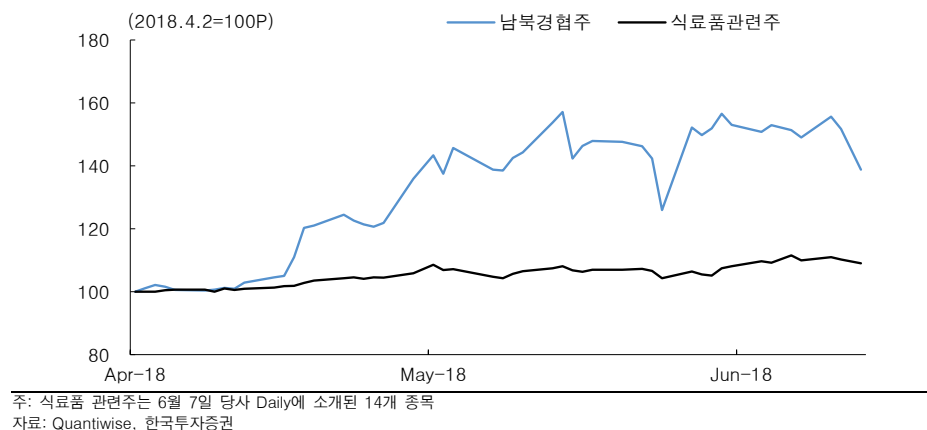
투자정보부
taewan.oh@truefriend.com

트레이딩 Tip

- 북미정상회담 개최 이후 남북 경협주의 대장주로 불리던 시멘트와 철도주들의 차익실현 양상이 더욱 뚜렷해지는 모습
- 남북경제협력의 시장이 예상한 수준처럼 빠르게 이뤄질 수 있을지는 의문. 트럼프 대통령은 기자회견에서 북한에 대한 경제제재 해제는 상당한 수준의 비핵화가 진행된 이후에 이뤄질 것이라고 언급했으며, 어제 우리나라를 방문한 폼페이오 국무장관은 2년 반내 북한의 주요 비핵화를 달성이 희망적이라고 언급. 북한의 완전한 비핵화에는 최대 15년이 소요될 것이라는 분석도 제기되는 상황. 앞으로 인도적 차원의 대북지원이나 남북공동 행사 개최가 단계적으로 성사될 가능성은 높지만 남북 경협주에 실질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의미있는 이벤트가 발생되기까지는 시간이 필요할 전망
- 과거 북한에 대한 지원 품목 중 식료품과 약품이 주류를 이루었고 기타 경협주 대비 상대적으로 상승폭이 크지 않은데다 인플레이션 헤지 기능까지 겸비하고 있어 금리상승을 방어할 수 있는 식료품 관련주가 현시점에서는 무난한 대안이 될 수 있음

[그림 1] 남북 경협주와 식료품 관련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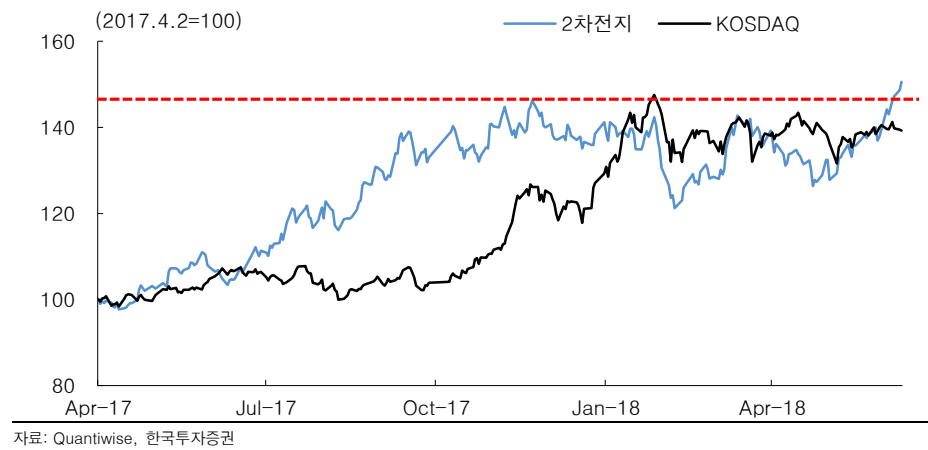
식료품 관련주는
크게 오르지 않아
큰 폭의 조정도 없을 것



- 중국 최대의 전기차 배터리 제조사인 CATL이 6월 11일 선전 증시에 상장된 후, 급등세를 보임에 따라 국내 2차전지 관련주들도 동반강세를 보임. 글로벌 주식시장에서 순수 전기차 배터리 업체로는 처음 상장된 만큼 앞으로도 관련종목들의 주가 흐름을 결정하는 주요인이 될 전망. 남북경협 테마가 수익률 게임의 주인공 자리를 내어준 가운데 CATL 상장이라는 모멘텀은 글로벌 전기차 시장의 성장에 대한 관심을 제고시킬 가능성이 높음. 기술적으로 지난해 말 형성된 고점을 돌파하는 모습이라는 점도 긍정적(5월 23일자 ‘중국 배터리업체 CATL의 IPO 영향’ 참고).

2차전지 테마지수가
지난해 형성되었던
고점을 돌파

[그림 2] 2차전지 테마의 강력한 반등



■ Compliance notice

- 본 자료는 고객의 증권투자를 돕기 위하여 작성된 당사의 저작물로서 모든 저작권은 당사에게 있으며, 당사의 동의 없이 어떤 형태로든 복제, 배포, 전송, 변형할 수 없습니다.
- 본 자료는 당사 리서치센터에서 수집한 자료 및 정보를 기초로 작성된 것이나 당사가 그 자료 및 정보의 정확성이나 완전성을 보장할 수는 없으므로 당사는 본 자료로써 고객의 투자 결과에 대한 어떠한 보장도 행하는 것이 아닙니다.
- 최종적인 투자 결정은 고객의 판단에 기초한 것이며 본 자료는 투자 결과와 관련한 법적 분쟁에서 증거로 사용될 수 없습니다